

서 교육감, 스승의 날 맞아 교사들에 감사 편지

“가르침의 보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우리 교육 이끌어 준 열정·헌신에 감사”

서거석 교육감은 제42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 교육을 이끌어 준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지난 12일 스승의 날 기념 서한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하고 꿈을 응원해주셨던 스승, 힘들 때 붙잡아주고 부드러

운 조언으로 이끌어주신 스승이 있었다”면서 “선생님의 숭고한 노력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평생의 스승이 계신다”면서 중학교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고 등을 토닥여주셨던 은사님을 떠올렸다.

서 교육감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단이 두려워질 때도 있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교사들을 위로했다.

삶은 실로 가슴 벅찬 일이지만 때론 상처받고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는 때도 있다”면서 “설렘으로 썼던 편지

이러 “우리 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등을 보호하고,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가르침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스탠퍼드대학·엘스비어 진행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우석대 양갑식 교수

우석대학교 양갑식(한의대) 교수가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세계적인 연구 논문 출판 및 정보 분석 기업인 엘스비어(Elsevier)가 진행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세계 상위 2% 연구자 리스트는 2021년까지의 논문 피인용도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색인·인용 데이터베이스인 SCORUS 기반과 22개의 주요 학문 분야, 174개의 세부 주제 분야별로 최소 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연구자 중 백분위 2% 이상인 상위 10만 명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했으며, 해당 논문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인 네이처 리뷰 류머티즘(Nature Reviews Rheumatology)에 연구 하이라이트

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해당 연구 성과를 활용해 나노지질 전달체를 이용한 건선 치료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갑식 교수는 “우수한 학생과 연구 환경을 제공해 준 대학에 감사하다”며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 연구에 더욱더 매진해 전 세계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병용 한의과대학장은 “양갑식 교수의 이번 성과는 창의적인 연구력이 그 바탕이 됐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폴리텍 전북, 친환경농업

전문가 초청 런치 세미나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학장 배규환)는 지난 11일 친환경농업분야 전문가 김수희 강사를 초청해 런치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국내 친환경농업 현황, 친환경농산물인증, 유기농자재 원료·개발·분석·판매 등의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생명바이오시스템과 하이테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런치 세미나에서는 김수희 강사가 10여년 동안 경험한 친환경농업 현장과 필요 직무역량 및 국가기술자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 운영... 4주동안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고등학교 교사들의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대입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위탁·운영한다.

이번 직무연수는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하며, 도내 일선학교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각 40명을 선발했다. 강사로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대학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한다.

특히 심화반은 대입진학지도지원단원, 최근 5년 이내 일선학교 33 진학부장 및 33 담임교사 유경향 등이 대상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감정평가사 초청 특강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정태종)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공동으로 감정평가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인재학부 현재 통계학과와 농경제축융합부(농업경제학), 회계학과 등과 함께 ‘감정평가사 연계전공’ 과정 신설을 위해 긴밀한 연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제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꿈을 향한 여정, 감정평가사’와 함께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초청 특강이 열렸다.

이날 특강에서는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출신인 김해진 감정평가사(태평양 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가 연사로 나서 학창시절 겪었던 진로와 관련한 현실적인 고민과 감정평가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후배들에게 가감 없이 전했다. 이어 중앙감정평가법인 전북지사에 재직 중인 오수인 감정평가사가 2부 연사로 나서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공부 방법과 본인의 합격수기를 생생하게 전해 관련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1일 익산 관내 학부모·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교육감, 익산서 공감 토크

학부모·교직원 400여명과 교육현안 소통

전국연합학력평가·그린스마트스쿨 관련 논의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1일 익산 관내 학부모·교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 과학교육원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및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 학교 살리기 △기초학력 책임제 △교과권과 학생인권 균형과 조화 등 올해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학부모는 “지난 3월 전북지역에

서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지 않았다”면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중학교 3년 동안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으니 내년부터는 꼭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학부모는 “익산교육지원청에 회의실이 없어 학부모단체들이 모임을 갖기 어렵다”면서 “중소형 규모의 회의실 설립을 원한다”고 말했다.

공감 토크에 참석한 한 교직원은 “그린스마트스쿨로 지정돼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첫 삽도 뜨기 전에 공사가 중단됐다”면서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재검토 중이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는 “감시원 감사로 학생 60명이 안 되는 전국의 모든 학교는 학생 수 감소 추이 검토로 공사가 중단됐다”면서 “조만간 이와 관련한 교육부 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글로벌대학 30’ 추진 학생 의견 수렴 나서

전공교과목 연계

리빙랩 프로그램 확대

자율전공 도입 등 제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2일 대학 본관 소회의실에서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학생회장단과 박진배 총장, 교육부총장, 대외부총장, 학생취업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 30’ 추진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회장단과 ‘글로벌대학 30’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 중심의 탄탄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 10개 내외,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회장단은 대학에서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추진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수렴된 재학생 의견을



전주대학교는 지난 12일 대학 본관 소회의실에서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학생회장단과 박진배 총장, 교육부총장, 대외부총장, 학생취업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 30’ 추진을 위한 학생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바탕으로 전공교과목과 연계한 리빙랩 프로그램 확대, 자율전공 도입 등 학생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총장님과 주요 보직자께서 대학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대학은 학생의 미래

를 보장해 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성공적인 글로벌대학 추진을 통해 대학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주대는 지난 3월부터 글로벌대학 혁신기회 수립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및 ‘글로벌대학 30’ 혁신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권역내 87개 예비창업자·기업 지원

전북대, 올 창업중심대 예비 창업기업 지원 선정 평가 통해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예비 창업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를 통해 권역 내 87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을 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9개 대학을 지정해 해당 권역 내 창업지원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올해 예비창업자 39명, 초기 창업기업 24개사, 실험실 연계 초기 5개사, 도약기 창업기업 19개사를 선발해 약 84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예비 창업부터 초기 도약 기업까지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기업

고도화 성장을 위한 투자 등 전 주기의 단계별 특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등 정부 대표 창업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권역 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및 권역 우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융합기술 창업을 통해 스타기업을 배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호남권역 창업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앞장설 것”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행동강령책임관 청렴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소속기관 및 초·중·고교의 행동강령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책임관의 역량 강화와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감질예방 교육,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탁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 청렴관련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면서 “행동강령책임



관들이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발생시 매뉴얼에 맞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